

홈 > 뉴스 > 자치행정 > 진안

구름재 박병순 시인 시비 건립식 가져

2017년 10월 09일 (월)

김성봉 기자



진안이 낳은 시조시단의 거목인 구름재 박병순 시인의 시비 건립식이 지난 9일 곰티재 메타세퀘이아 길 입구 시인의 생가에 건립됐다.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박명석군의장과 윤석정, 이운룡, 김남곤 공동추진위원장 등 예술계인사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막식에는 한글 전용의 선구자로 9일 한글날을 맞아 시인의 대표작인 ‘봄날’을 새긴 시비가 건립된 제막식으로 그 뜻이 더욱 빛났다.

구름재 박병순 시인은 올해가 태어난지 100주년 되는 해로 진안공립보통학교, 대구사범학교, 전북대학교 국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주사범부속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전주공고, 전라고, 진안농고 등에서 40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이후 중앙대, 전주대, 한양대학교 등에서 시조창작론, 고전세미나 등을 강의했다.

시인은 지난 2008년 작고하기까지 처녀시집 낙수첩 11권, 1104편의 작품을 발표하는 등 평생 교단에서 애국심과 우리글 한글을 바탕으로 나라사랑, 한글사랑, 시조사랑 삼애(三愛)를 몸소 실천한

시인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말 지킴이로 위촉된 바 있으며 한글학회 100돌 기념 공로상(2008년) 등을 수상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